



즉시 배포용: 2020년 6월 28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프라이드 선데이를 맞아 성적 취향 또는 성 정체성으로 인해 불명예 제대를 당한 퇴역 군인을 지원하기 위한 명예 회복법에 대한 신청이 현재 가능하다고 발표

뉴욕주 랜드마크는 **LGBTQ 프라이드 플래그의 색상**으로 주말 동안 점등했으며 사진은 [여기](#)에서 확인 가능

주지사는 또한 의료 부문에서 **LGBTQ** 뉴욕 주민을 편향 문제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DFS** 조치 발표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성소수자(LGBTQ) 정체성으로 인해 불명예 제대를 당한 뉴욕의 퇴역 군인이 명예 회복법(Restoration of Honor Act)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를 통해 성적 취향이나 성 정체성으로 인해 불명예 제대를 당한 퇴역 군인들은 뉴욕주에서 퇴역 군인이 누리는 혜택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주지사는 또한 연방 정부가 LGBTQ 뉴욕 주민에 대한 보호 조치를 제거하거나 방해하는 가운데 의료 부문의 차별로부터 이들을 더욱 보호하기 위한 뉴욕주 금융 서비스부(Department of Financial Services, DFS)의 조치를 오늘 발표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올해 프라이드 먼쓰(Pride Month)와 뉴욕주의 첫 번째 프라이드(Pride) 첫 번째 행진 50주년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LGBTQ 권리를 위한 우리의 노력을 다시 확인하고 LGBTQ 커뮤니티 및 우리의 퇴역 군인과 함께 연대합니다. 단순히 정체성으로 인해 불명예 제대를 당한 LGBTQ 퇴역 군인의 주정부 혜택을 회복하는 것은 옳은 일이며, 이 나라에 대한 그들의 봉사에 대한 감사를 보여주는 적절한 방법입니다. 뉴욕은 평등과 정의에 대한 운동을 계속 선도하고 있으며, 전국 지역사회가 긴급한 개혁을 위해 결집하는 가운데, 우리는 유색 트랜스젠더들에게 피해를 주는 차별적인 '워킹 와일 트랜스(walking while trans)' 정책을 철폐하는 등 우리의 진보를 계속 이어가야만 합니다."

이번 주말 내내 뉴욕에서 프라이드 행사 및 뉴욕시 첫 번째 프라이드 행진 50주년을 기념하여, 뉴욕주 전역의 랜드마크에 프라이드 먼쓰 및 LGBTQ 커뮤니티를 위해 [점등](#)했습니다. 이러한 랜드마크에는 원 월드 트레이드 센터(One World Trade Center), 퍼싱 스퀘어 육교(Pershing Square Viaduct), 코지우스코 다리(Kosciuszko Bridge), Mario M. Cuomo 주지사 교량(Governor Mario M. Cuomo Bridge), 미드 허드슨

브리지(Mid-Hudson Bridge), 화이트페이스 레이크 플라시드 올림픽 센터(Whiteface Lake Placid Olympic Center), 뉴욕 주립 대학교 중앙 행정 빌딩(SUNY Central Administration Building), 주 교육 빌딩(State Education Building), Alfred E. Smith 빌딩(Alfred E. Smith Building), 니아가라 폭포(Niagara Falls) 및 뉴욕주 박람회장 게이트(State Fair Main Gate) 및 전시 센터(Exposition Center)가 포함되었습니다.

명예 회복법 신청 접수 중

성적 취향이나 성 정체성으로 인해 불명예 제대를 당한 퇴역 군인들은 뉴욕주에서 퇴역 군인이 누리는 혜택을 회복하기 위한 신청을 현재 [접수](#) 중입니다. 지난 11월 주지사가 서명한 명예 회복법은 군대에서 발생한 성적 트라우마, 외상성 뇌 손상 또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비롯해, "돈 애스크, 돈 텔(Don't Ask, Don't Tell)" 등 배제 정책으로 인해 불명예 제대를 당한 퇴역 군인이 복리후생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회복합니다. 이러한 불명예 제대는 퇴역 군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며, 종종 퇴역 군인이 혜택을 누리기가 어렵거나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명예 회복법으로 인해 뉴욕은 이러한 외상이나 성 소수자 정체성 때문에 명예 제대를 하지 못한 퇴역 군인의 혜택을 회복을 노력을 선도하는 위치를 얻게 되었습니다.

성적 지향, 성 정체성 또는 표현 또는 트랜스젠더 상태에 근거한 차별을 금지하는 뉴욕법에 따른 보험사의 주요 의무에 대한 지침

DFS는 성적 지향, 성 정체성 또는 표현 또는 트랜스젠더 상태, 예방 치료 및 선별에 근거한 비차별 보호와 관련한 최근의 뉴욕주 규정에 따른 의무를 설명하는 회보를 보험사에 보내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발행된 [회보](#)에서 DFS는 보험사에 뉴욕주 법 및 규정에 따라 보험사가 성적 지향, 성 정체성 또는 표현 또는 트랜스젠더 상태에 따라 개인을 차별하는 것을 계속 금지한다는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DFS는 시장 정책 점검을 포함하여 이러한 비차별 의무사항의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합니다. 또한 금융 서비스부는 차별에 대한 모든 법정 및 규제 금지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보험사에 대해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또한 DFS는 트랜스젠더 뉴욕 주민들이 성별 확증 치료과 관련한 건강 보험권을 이해할 수 있도록 [업데이트된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임기 동안 LGBTQ 권리를 옹호하는 전국적인 지도자가 되었으며 성전환자 [병역 복무 금지](#) 및 [의료 서비스 보호조치 철회](#) 등 LGBTQ 커뮤니티에 대한 연방 정부의 지속적 공격에 맞서고 있습니다. 올해 초 Cuomo 주지사는 대리모를 합법화하여 LGBTQ 커플 및 불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커플이 가족을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지난 해 Cuomo 주지사는 끔찍한 변환 치료를 금지하고 숙원이었던 [케이 및 레즈비언 패닉 디펜스 금지](#)를 위한 성별 표현 차별 금지법(Gender Expression Non-Discrimination Act)에 서명했습니다. 이번 달에 우리는 Cuomo 주지사의 결혼 평등법(Marriage Equality Act) 서명 9주년을 맞았습니다. 주지사의 서명으로 뉴욕주는 전국 최초로 결혼 평등법을 제정한 주가 되었습니다.

'워킹 와일 트랜스' 법규

2월에 열린 인권 캠페인 그레이터 뉴욕 갈라(Human Rights Campaign Greater New York Gala)에서 Cuomo 주지사는 "워킹 와일 트랜스" 법규로 알려진 뉴욕 형법(New York Penal Law) 240.37항을 철폐하여 정체성 또는 걸모습으로 인한 차별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보장했습니다. 시대에 맞지 않고 지나치게 광범위하며 차별적인 배제 법규에 따라 트랜스젠더 여성, 특히 유색인인 트랜스젠더 여성은 길거리에서 있거나 일상 생활을 하는 등의 무고하고 합법적인 행위까지 단속을 받았습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